

I. '인문학의 위기'

지난 해 전국 80여개 인문대학장이 모여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하고 인문학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이처럼 전국의 인문대학장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사실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에는 이제 다소 진부하다는 느낌도 아울러 든다. 인문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목소리와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이미 10년은 족히 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점을 시사한다.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에 비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미흡하였으며, 아울러 문제 해결의 전제로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인문학이 처한 위기는 근본적으로 대학외부 한국사회의 변화, 특히 그에 따른 인력의 수급문제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문학의 위기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현상들 즉, 인문학 전공의 기피와 인문학도의 취업난 등은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한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인력 수급의 불균형에 있다면 해결의 출발점도 거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대학교육, 특히 인문학교육을 시장의 논리에만 맞출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이 사회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사회적 변화를 싫든 좋든 하나의 현실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문제를 외면하고 위기현상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도를 찾기란 무망해 보인다.

그럼에도 그동안 인문학의 위기와 관련하여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같은 문제를 인문학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논의하는 모습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오히려 학과통폐합, 모집단위의 광역화 등에 대한 거센 비판과 거부에서 보았듯이 인력 수급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를 오히려 인문학의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마저 있었다.

물론 대학교육 자체가 반드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할 분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호

1) 서울대학교 교수

와 육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나쳐 인문학 전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과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학생이 특정 학과를 위해 존재해야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그것이 '인문학의 위기'가 아니라 '인문대학의 위기' 일뿐이라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바로 인문학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목소리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자기 쇄신은 소홀히 한 채 정책적 보호와 지원에 기대려는 경향에 대한 비판으로서 깊이 새길 만하다.

위기에 당면한 것은 인문학 자체가 아니라 인문대학이라는 인식에서는 문제해결의 방향은 분명하다. 즉 대학에서 이뤄지는 인문학 교육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대학의 인문학 교육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인문학 교육의 개선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한다. 그 하나는 교육의 편제, 즉 주로 학생의 선발 및 편성과 관련된 제도와 조직의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의 내용, 다시 말해 교과과정의 측면이다. 인문학 교육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광역화 모집이나 학과 통폐합 등의 형태로 주로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이 시행 중인 인문학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작한 특성화교육은 인문학 교육의 목표와 방향설정에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방식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교육모델을 수립하고자하며, 인문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교과과정, 교육여건 및 교육시설의 개선 등을 통해 그동안 학사편제를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작업에서 종종 소홀히 된 인문학 교육을 내실화하고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의 발전을 다지고자 한다.

II. 서울대학교 인문학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및 운영현황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http://dh.snu.ac.kr> 참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이 인문학 교육의 혁신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특성화사업은 크게 5가지 중점 영역, 총 13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5가지 중점분야는 (1) 학생의 학습동기와 창의성을 최대한 개발하는 소단위교육 (2) 다양한 학문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학제적 교육 (3) 정보화시대의 기술발전을 활용한 인문학 교육의 정보화 (4)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는 외국어교육의 강화 (5) 인문학도의 사회진출 지원 등이다. 특성화교육의 중점 및 세부 프로그램의 개요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창의성개발 소단위학습 프로그램

창의성개발 소단위학습 프로그램은 학업성취 능력이 우수하고 지적으로 다양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밀착교육과 심층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잠재된 지적 능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개발하자는 것이다.

(1) 독립과제연구 프로그램

○ 개요

- 학생이 스스로 문제의식에 따라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기 중 과제를 처리하여 학점을 취득함

○ 운영방식

- 인문대 공통으로 독립과제 연구과목을 개설하고, 학과별로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며 학점을 부여함.
- 학생은 기존 교과목에서는 효과적으로 탐구하기 어렵고, 독창성이 있는 주제로 연구과제 제안서를 제출함.
- 소속 학과와 인문대 특성화사업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서의 내용(연구주제, 수학기획, 희망 지도교수)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수 허용여부를 결정함.
- 신청자격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전공과정 학생에 한함 (직전학기 성적이 3.7 이상 혹은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3.4 이상)
- 주제에 따라 2인 이상의 지도교수로부터 공동지도도 가능함.
- 지도교수는 매주 1회 이상 연구과제의 진척사항을 점검하고 최종 연구 결과물을 평가 하여 성적을 부여함.
- 우수한 연구 결과물은 별도로 포상하거나, 학생이 원할 경우 졸업논문으로 인정함.

○ 기대효과

- 교수, 강의 중심 교과과정 보완
- 학생들의 다양한 지적 관심과 흥미의 충족
- 맞춤형 개별학습과 심화학습기회 부여
- 창의성 있는 우수학생 발굴
- 학생의 학습의욕과 교수와의 유대감 증대

(2) 소그룹 고전원전읽기 프로그램

○ 개요

- 소그룹의 학생이 교수와 함께 고전 원전을 읽음으로써, 한문 및 외국어(고전어 포

함) 독해 능력을 향상시킴.

○ 운영방식

- 교수가 선정한 고전 원전 중 학생이 독해 희망 도서를 선택해 수강을 신청함.
- 수강 인원은 5명 이내로 제한하여 소그룹으로 운영하며, 수강희망자가 1명이라도 개설을 허용함.
- 주당 3시간 정도로 운영함
- 인문대학 공통교과목으로 개설하고, 1학점을 부여하며, S/U로 평가
- 인문대학 2005학번부터는 졸업필수과목으로 지정함
- 교내 타 단과대학 소속 학생에게도 수강을 허용함

○ 기대효과

- 인문학 기초교육 강화
- 한문과 외국어 능력 향상
- 소그룹운영을 통한 교수·학생 간 밀착교육

(3) 소그룹 특활세미나 프로그램

○ 개요

- 소그룹의 학생들이 스스로의 문제의식과 선택한 주제에 따라 세미나를 조직하고 전임교수나 튜터의 지도를 받음.

○ 운영방식

- 학생들 스스로 세미나 팀을 구성하되, 인원은 10명을 넘지 않게 함.
- 세미나는 학기 단위, 혹은 방학 단위로 운영하고, 회수는 10회를 기준으로 함.
- 학생들의 세미나 신청서(주제, 교재, 희망 지도교수, 운영방식 서술)를 받아 운영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승인하며,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교수 혹은 박사급 인력을 세미나 튜터로 배치함.
- 세미나 운영비를 지원함

○ 기대효과

- 교수와 강의 중심 교과과정 보완
- 다양한 지적관심과 문제의식의 충족
-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태도 함양 및 인문학에 대한 관심의 제고

(4) 졸업논문지도 프로그램

○ 개요

- 학부 전공교육의 마무리 단계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졸업논문 작성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하여, 지도를 강화함.

○ 운영 방식

- 전공별로 교과과정에서 졸업논문지도에 해당하는 과목을 지정 혹은 신설하고, 학생은 논문작성법과 주제선정에서 발표에 이르기까지 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수업을 통해 지도받음.
- 졸업논문과목은 학점을 부여하고 결과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 학과별로 졸업논문발표회, 우수논문 포상, 우수논문집 발간 등을 실시함.

○ 기대효과

- 졸업논문제도 활성화
- 전공학습의욕 고취
-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
- 글쓰기, 발표 및 토론 능력 향상

(5) 튜터 학습지도 프로그램

○ 개요

- 정규수업 또는 소단위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박사급 연구인력을 지원

○ 운영 방식

- 학과별로 박사급 연구인력을 튜터로 선발하여 토론 등 정규수업 및 졸업논문지도, 독립과제연구지도, 소그룹 특활세미나 지도 등을 지원

○ 기대효과

- 수업효과 강화
- 소단위 학습활동 활성화
- 학생지도 강화

2) 학제적 교육 프로그램

학제적 교육 프로그램은 인문학의 여러 전공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강좌나 전공을 개설함으로써 세분화된 전공의 벽을 넘어 지식기반사회에서 요청되는 폭넓은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1) 협동강의 프로그램

○ 개요

- 학제적 협동강의 교과목을 개발하여 연구와 교육에서 학문분야간 교류와 협력을 추구함

○ 운영방식

-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 전공 영역 간, 혹은 한국학과 외국학 영역 간 교수 2~3 명이 공동주제를 정하거나, 기존의 대학원 협동과정(비교문학·공연예술·서양고전·인지과학·기록관리)과 연계해 협동강좌를 개발해서 운영함.
- 수업내용과 방식은 담당교수들 사이에서 분업이 아니라 협업의 형태로 이뤄지도록 함
- 협동강의는 인문대 공통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이수 시 전공학점으로 인정함

○ 기대효과

- 학과 및 전공 운영의 폐쇄성과 배타성 극복
- 새로운 교과목 개발을 통한 교과과정의 개선
- 학제적 성격의 새로운 인문학 전공분야의 개척

(2) 연합전공 프로그램

○ 개요

- 협동강의를 토대로 지역학, 문화학 등 학제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인문학 전공을 개발함

○ 추진방식

- 협동강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동강의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연차별 계획 3, 4단계)에서 추진함
- 최소 2개 이상의 학과와 5명 이상의 교수가 참여해야 함
- 전공개설 전 교과과정을 포함한 교육내용 및 운영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한국학, 동아시아학, 유럽학 등 지역학 혹은 문화학 전공을 개발하거나, 비교문학·공연예술·서양고전·인지과학·기록관리 등 기존 인문대학에 설치된 대학원 협동과정과 연계된 전공을 개발함.

○ 기대효과

-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제고

- 학사구조 조정의 기반 마련
- 세계화 시대 지역문화의 이해와 지역전문가 양성

3) 인문학 교육 정보화 프로그램

인문교육 정보화프로그램은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멀티미디어의 발달을 적극 활용하여 인문학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인문학 연구자들의 지식과 연구 성과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이를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1) e-class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 개요

-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활용이 가능하도록 수업 내용과 관련 자료를 디지털화 함

○ 운영방식

- 활자매체에 의존한 오프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의안을 비롯해 시청각 자료를 파워포인트, 웹, 동영상 등으로 콘텐츠화 하여 수업보조 자료로 활용함
- e-class 운영 플랫폼으로서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탑재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에도 수업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콘텐츠 자료의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 인문학 교육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기대효과

- 수업의 질적 개선
- 수업 시간 외 수업자료 접근 가능함으로써 학습효과 증대
- 인문학 교육 자료 구축

(2) 디지털 인문학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 개요

- 강의를 위한 e-class 콘텐츠와는 별도로 인문학 연구자들의 전공지식과 연구성과를 디지털 콘텐츠로 구축하여 대학 내 교육과 연구 나아가 일반 사회교육의 영역에까지 활용함

○ 운영방안

-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콘텐츠의 특성에 맞고 e-class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인문학 포털플랫폼을 개발함
- 주제 및 자료의 성격에 따라 텍스트 위주의 웹 게시형, 시청각 자료와 결합한 블로

그형, 그밖에 동영상 형식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개발함

- 콘텐츠 주제나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전공을 넘어 인문학 전체의 연구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주제나 인문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주제, 학생들과 일반인들도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를 권장함

○ 기대효과

- 정보화 시대 인문학 연구와 교육의 기반조성
- 인문학 지식의 사회적 활용과 대중화
-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의 개발

4) 외국어교육 강화 프로그램

외국어는 인문학 연구의 바탕일 뿐 아니라 세계화 시대 전문 인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라는 점에서 인문학 교육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지닌다. 외국어교육 강화 프로그램은 외국어의 중요성과 사회적 활용도를 고려하여 외국어에 대한 집중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1) 외국어교과목 실습강화 프로그램

○ 개요

- 외국어 강좌의 실습 시수를 늘리고 원어민 강사의 활용을 확대함.

○ 운영 방식

- 외국어학과의 전공교과목 가운데 연습·회화·작문 등과 관련된 교과목의 교과목 주당 시수를 3학점 3시간에서 3학점 5시간으로 늘려, 3시간은 담당교수가 강의를 담당하고, 나머지 2시간은 원어민 강사나 조교를 활용하여 외국어 실습에 할당함.
- 전공외국어별로 평가기준과 단계별 성과수준을 측정하여 수강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여부와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함

○ 기대효과

- 외국어 교육의 질적 개선
- 외국어 듣기, 말하기, 글쓰기 수준의 향상

(2) 외국어캠프 프로그램

○ 개요

- 캠프를 통해 집중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운영 방식

-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별로 여름 혹은 겨울방학 중 매년 1차례 캠프를 운영함
- 국내외에서 숙소와 강의실이 갖추어진 시설을 이용하여 10~15일간 숙박하면서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학습.
- 해당 학과 전임 교수 외 다수의 원어민과 박사급 인력이 교사로 참여하며, 최소 학생 5인당 원어민 1인을 배치하여 소그룹 활동을 운영
- 가급적 초·중·고급의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급의 경우 외국어 학습과 아울러 외국문화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
- 외국어 전공이 아닌 인문대 학생도 참여할 수 있음
- 외국어 전공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외국어 캠프 참여를 필수화하는 방향을 모색함

○ 기대효과

- 실용외국어 학습기회 제공
- 집중학습을 통한 외국어 능력향상

5) 진로모색 지원 프로그램

인문학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타파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교육의 기대효과를 가시화하고 실용화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정보화시대 인문학 지식이 활용되는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상담을 강화함으로써 인문학도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돕자는 것이다.

(1) 진로지도 특강 프로그램

○ 개요

- 다양한 직업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빙강사를 중심으로 인문학의 사회적 활용도와 실용적 가치를 주제로 한 강좌를 운영

○ 운영 방식

- 강좌 운영위원회가 강사진을 구성하여, 1~2주 단위로 강좌를 운영.

- 인문학 지식이 활용되고, 인문학적 사고가 요구되는 직업영역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학점 부여 교과목으로의 개발을 고려함

○ 기대효과

- 인문학의 중요성 인식과 학습동기의 부여
- 취업 및 진로 상담, 인턴십 기획의 제공

(2)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 개요

- 인문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졸업생들을 활용하여 재학생의 직업정보 수집, 진로계획 수립 및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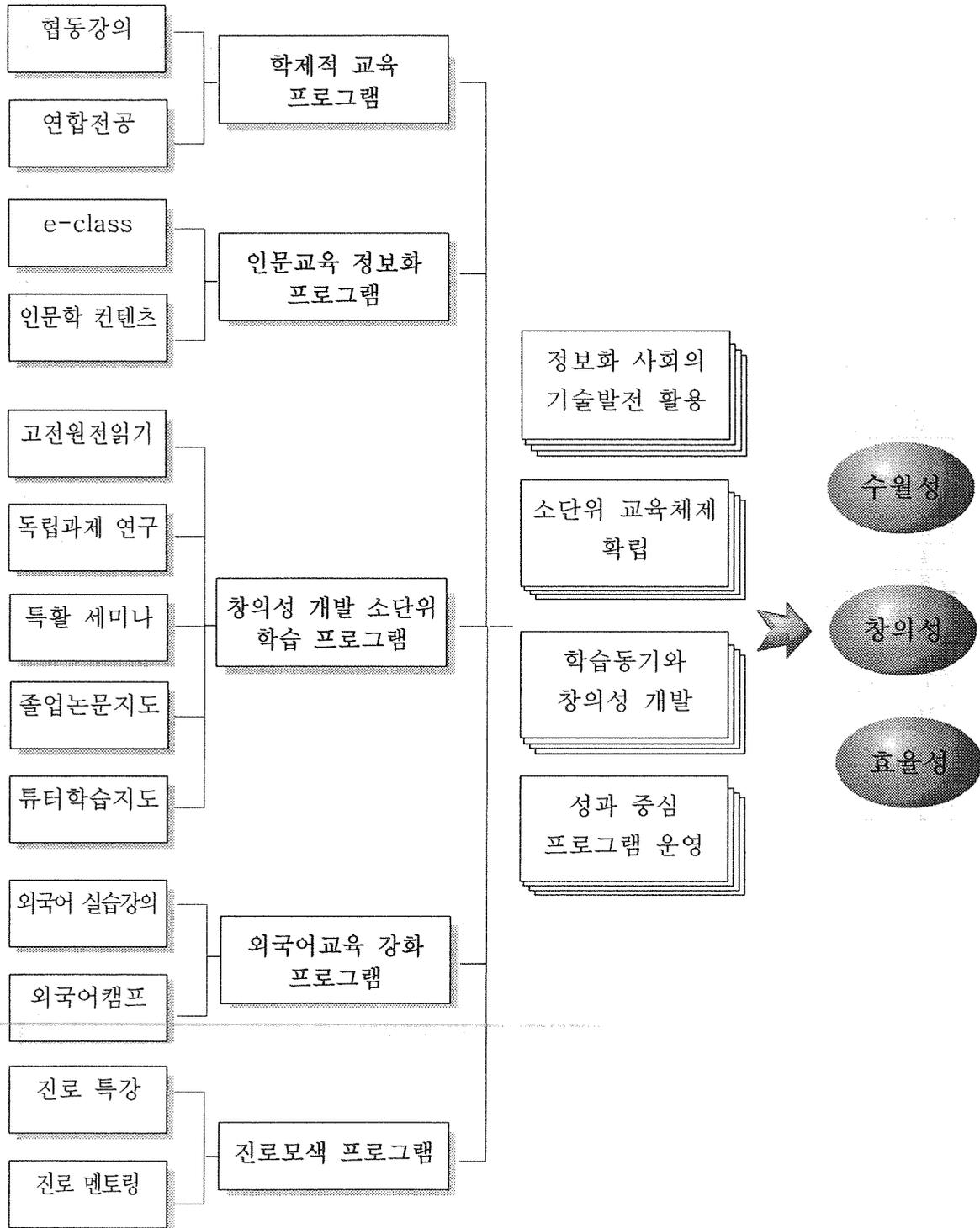
○ 운영 방식

- 졸업생 가운데 직종·업무분야·성·연령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의 상담원을 멘토로 위촉.
- 상담멘토를 공개하고,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멘토와 접촉하여 취업 문제를 상담.
- 상담 멘토를 통해 진로상담과 관련된 기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

○ 기대효과

- 오프라인 진로상담 비용과 노력 절감
- 인문학도를 위한 맞춤형 취업정보와 인턴십 및 취업기회 제공

특성화 프로그램 개요도



2.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2007.3.30일 현재)

1) 『e-class콘텐츠』 개발

순번	컨텐츠명		비고
2006년도 1학기			
1	한국어의미론		
2	중국문학사 I		
3	프랑스문학과 예술의 흐름		
4	서양연극의 이해		
5	의미론		
6	음운론		
7	말소리의 세계		
8	컴퓨터 언어학		
9	한국의 선사시대		
10	스페인어의 세계		
11	스페인사회와 문화		
12	한국현대사의 이해		
13	불교철학		
14	신화와 역사		
15	회랍비극		
16	동양철학의 이해		
2006년도 2학기			
1	한국어와 한국문화 2		
2	중국문학사2		
3	독일사		
4	한국의 고지도		
5	언어와 컴퓨터		
6	형태론		
7	영상예술의 이해		
8	중남미 시연습		
9	기독교 개론		
10	고고학 연구의 기초		
2007년도 1학기			
1	한국어사 특강		
2	미술사론		
3	한국고전소설론		
4	스페인어학개론		
5	영어발달사		
6	알타이어학		
7	대중예술의 이해		
8	미국문학개관1		
9	중국미술사		
10	독일명작의 이해		
2007년도 2학기(개발중)			
1	미술론 입문		
2	언어학연습2		
3	통사론		
4	고고학개론		
5	인류문화와 환경		
6	한국불교미술		
7	근대중국의 개혁과 혁명		
8	예술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9	Korean Language and Culture		외국인학생 대상
총 45과제			

2) 『디지털인문학컨텐츠』 개발

순번	컨텐츠명	개발자	비고
2006년도 1학기			
1	영상중국문화		
2	중국문인사회의 문화		
3	독일 시와 가곡		
4	인문학 교육 신화 컨텐츠		
5	한국전쟁과 전후문화		
6	서양 중세 사료 해제		
7	차이와 평등		
8	인류 최초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		
9	한국인의 죽음 이해		
10	아방가르드와 팝 아트		
11	현대 예술의 연원 ; 19세기의 예술과 사회		
12	그리스-로마 문예이론의 주요 전문용어		
13	고전원전을 통해 이해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14	고대 그리스 - 로마 문학사 개관		
15	동학가사 자료정리 및 해제		
2006년도 2학기			
1	프랑스 문학과 영상 예술		
2	동영상 장면으로 살펴보는 서양 연극사의 주요 작품		
3	안테스와 패자의 시각		
4	파우스트와 매체		
5	영화에서의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6	조선의 기생, 그 삶과 목소리		
7	러시아 명화(名畵)속의 역사와 문학		
8	프랑스어권 카리브 지역의 탈식민 문학과 담론		
9	아프리카의 가면		
10	중국문학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		
11	논어와 현대사회		
2007년도 1학기			
1	동아시아 소수민족의 신화와 문화		
2	박태원 소설 《구보씨의 일일》과 1930년대 전반기 경성		
3	중국의 소설과 영화		
4	이미지 혹은 시각매체와 근대성		
5	디지털 아트의 상호 작용성		
6	현대 예술의 문제와 쟁점 사례 연구		
7	텍스트와 음향 및 영상 - 바그너 오페라의 구성요소들		
8	대중음악의 미학적 이해		
9	대중문화의 이해		
10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세계		
2007년도 2학기 (개발중)			
1	함무라비 법전		
2	서양고전문학에 나타난 꿈		
3	한글과 정보화		
4	환경과 예술		
5	시각중심주의의 문제들		
6	아테네의 10대 연설가		
7	선종과 중국 사대부 문화		
8	'현대' 이후의 미술을 읽는 다섯 가지의 내러티브		
9	한자와 문화		
10	니체의 잠언과 해설		
11	중국 및 일본 사행 체험을 다룬 가사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 및 해제		
총 47과제			

3) 『인문학협동강의』 개설현황 (2006.1학기~2007.1학기)

순번	개설학기	강좌명	소속	개발자	수강인원	비고
1	2006-1	정보화 시대의 언어문제 : 전자사건의 이해	언어학과 불어불문학과		4	
2	2006-1	동서양 문학과 문화의 만남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13	
3	2006-1	동서양 신화의 대화	종교학과 국어국문학과		9	
4	2006-2	유럽 문화의 안과 밖: 게르만족·슬라브적 요소를 통해 본 유럽 문화	노어노문학과 서양사학과		7	
5	2006-2	문인사대부의 삶과 예술과 철학	미학과 중어중문학과		3	
6	2007-1	러시아 문화의 향연(饗宴): 문학, 예술, 역사	서양사학과 노어노문학과		11	
7	2007-1	동서양 신화의 대화	종교학과 국어국문학과		9	재개설
8	2007-1	정보화 시대의 언어문제 : 전자사건의 이해	언어학과 불어불문학과		폐강	재개설
9	2007-1	동서양 문학과 문화의 만남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폐강	재개설
10	2007-2 예정	-				지원 신청無

4) 『인문학독립과제연구』 교과목 개설현황 (2006.1학기~2007.1학기)

순번	개설학기	과제명	소속	지도교수	수강인원	비고
1	2006-1	개화기 사회 변동과 문학 소비층의 근대적 문화인식에 대하여	국어국문학과			
2	2006-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종교문화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	종교학과			
3	2006-1	주역의 이해와 다산과 김일부의 주역 극복	종교학과			
4	2006-1	김남천의 소설에 나타난 작가의 경험에 관하여	국어국문학과			
5	2006-1	권력의 탄생과 희생제의	종교학과			
6	2006-2	한국어 1인칭 대명사 '우리'의 의미: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과			복수 전공
7	2006-2	'마음'의 본성에 대한 대표 이론과 심적 인과의 문제	철학과			복수 전공
8	2007-1	현대 표준 아랍어의 전이음 연구	언어학과			
9	2007-1	최정희의 해방 이후 소설에 나타난 현실과 여성문제 인식연구	국어국문학과			
10	2007-1	이슬람 사회에서 종교와 세속 이데올로기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종교학과			
11	2007-1	권력의 탄생과 희생제의	국어교육과			지원금 無
총 11명						

5) 『졸업논문지도』 운영현황(2005.2학기~2007.1학기)

순번	개설학기	강좌명	개설학과	담당교수	수강인원	비고
1	2005-2	독문학 특강	독어독문학과		10	
2	2005-2	중국문학이론특강	중어중문학과		10	
3	2005-2	서양사 연습	서양사학과		6	
4	2005-2	한국사연구방법론	국사학과		28	
5	2006-1	서양사연습	서양사학과		12	
6	2006-1	동양사학 연구지도	동양사학과		17	
7	2006-1	현대독일미학연습	미학과		8	
8	2006-2	중국문학이론특강	중어중문학과		13	
9	2006-2	중국문학이론특강	중어중문학과		18	
10	2006-2	독어독문학 논문쓰기	독어독문학과		7	
11	2006-2	서양사 연습	서양사학과		10	
12	2006-2	고고학 연습	고고미술사학과		5	
13	2006-2	현대영·미미학 연습	미학과		18	
14	2007-1	서양사연습	서양사학과		13	
15	2007-1	종교학졸업논문지도	종교학과		3	
16	2007-1	동양사학연구지도	동양사학과		14	
17	2007-1	언어학연습1	언어학과		5	
18	2007-1	미술사연습	고고미술사학과		17	
19	2007-1	미학졸업논문지도	미학과		15	
총 19과제						

6) 『소그룹고전원전읽기』 개설현황(2006.1학기~2007.1학기)

순번	개설학기	강좌명	교과목번호 (강좌번호)	지도교수	수강인원	비고
1	2006-1	장지연 편, 『대동시선』	003.087(001)		1	
2	2006-1	두시언해	003.087(002)		5	
3	2006-1	『한중록』	003.087(003)		2	
4	2006-1	『古文觀止』	003.087(004)		2	
5	2006-1	何晏, 『論語集解』 - 古注로 읽어보는 論語	003.087(005)		5	
6	2006-1	루쉰(魯迅)의 『등풀(野草)』	003.087(006)		5	
7	2006-1	『The Prince, trans. and ed. Quentin Skinner and Russell Price』	003.087(007)		3	
8	2006-1	새뮤얼 존슨(Samuel Johnson), 『라셀라스』(Rasselas)	003.087(008)		5	
9	2006-1	Eric Hobsbawm, 『The Age of Empire 1875-1914』	003.087(009)		3	
10	2006-1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인간의 조건)	003.087(010)		4	
11	2006-1	『The Waning of the Middle Ages, trans. Fritz Hopman』	003.087(011)		4	
12	2006-1	M. Proust,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003.087(012)		2	
13	2006-1	『Evolution et Structure de la langue francaise』	003.087(013)		1	
14	2006-1	『Cours de Linguistique Gnrale』(일반언어학 강의)	003.087(014)		4	
15	2006-1	S. Freud, 『Die Traumdeutung』(꿈의 해석)	003.087(015)		1	
16	2006-1	G.W.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003.087(016)		2	
17	2006-1	《모스크바-페투쉬키(МОСКВА - ПЕТУШКИ)》	003.087(017)		2	
18	2006-1	푸슈킨의 운문시 <예브게니 오네긴>	003.087(018)		2	
19	2006-1	El siglo de las luces, Alejo Carpentier 1962, 『계몽의 세기』	003.087(019)		1	
20	2006-1	J.L.Borges, 『Otras Inquisiciones』(또 다른 탐문)	003.087(020)		1	
21	2006-1	『楞嚴經』(능엄경)	003.087(021)		1	
22	2006-1	일연, 『삼국유사』	003.087(022)		3	
23	2006-1	신채호, 『丹齋 申采浩 全集』	003.087(023)		1	
24	2006-1	조선시대 고문서 (고문서를 통해본 조선시대 생활사)	003.087(024)		2	
25	2006-1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003.087(025)		5	
26	2006-1	이익, 『성호사설』	003.087(026)		5	
27	2006-1	(淸) 王先慎 撰, 鍾哲 點校, 『韓非子集解』	003.087(027)		3	
28	2006-1	야드린체프의 “식민지로서의 시베리아”	003.087(028)		1	
29	2006-1	『Religiöse Bewegungen im Mittelalter』(중세의 종교운동)	003.087(029)		2	
30	2006-1	L.H. Morgan 『Ancient Society』	003.087(030)		3	
31	2006-1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003.087(031)		2	
32	2006-1	『Der Ursprung des Kunstwerkes』(예술작품의 근원)	003.087(032)		4	
33	2006-1	『維摩經』(유마경)	003.087(033)		5	
34	2006-1	P.L. Berger, 『The Heretical Imperative』	003.087(034)		3	
35	2006-1	한문 불교원전 - 『금강경』	003.087(035)		3	
36	2006-1	『Biblica Hebraica』(구약성서)	003.087(036)		6	
37	2006-1	『東經大全』	003.087(037)		4	
38	2006-1	『中國古典美學學要』	003.087(038)		2	
39	2006-1	S. Blackburn, 『Think』	003.087(039)		5	
소계 39강좌						

순번	개설학기	강좌명	교과목번호 (강좌번호)	지도교수	수강인원	비고
1	2006-2	구운몽	003.087(003)		1	
2	2006-2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0	003.087(001)		3	
3	2006-2	김주현 편, 원본 이상 소설 전집	003.087(004)		14	
4	2006-2	청주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003.087(002)		1	
5	2006-2	<<小學>> (朱子, 劉子澄 저)	003.087(005)		4	
6	2006-2	邢昺(932-1010)의 『論語注疏』	003.087(007)		4	
7	2006-2	왕양명, 『전습록』 卷上	003.087(008)		0	폐강
8	2006-2	《千家詩》(明末清初 無名氏 編)	003.087(006)		5	
9	2006-2	古文觀止	003.087(009)		5	
10	2006-2	Eric Hobsbawm, <i>The Age of Revolution 1789-1848</i>	003.087(010)		6	
11	2006-2	<i>Growth and Structure of the English Language</i> , Otto Jespersen	003.087(011)		4	
12	2006-2	Alexis de Tocqueville, ed. Richard D. Heffner, <i>Democracy in America</i>	003.087(012)		3	
13	2006-2	Anglo-Saxon Chronicle (Peterborough Chronicle)	003.087(013)		3	
14	2006-2	Hannah Arendt, <i>On Revolution</i>	003.087(014)		2	
15	2006-2	『에밀』 (Allan Bloom의 영문 번역본)	003.087(015)		5	
16	2006-2	Montaigne, "Les Essais"	003.087(016)		3	
17	2006-2	Michelet. <i>La Sorcière</i> , GF-Flammarion	003.087(017)		5	
18	2006-2	Olivier Reboul, 1980, <i>Language et Idéologie</i> , P.U.F.	003.087(018)		1	
19	2006-2	Guy de Maupassant, <i>Boule de suif et autres nouvelles de guerre</i>	003.087(019)		4	
20	2006-2	Antoine de Saint-Exupéry, <i>Terre des hommes</i> , Gallimard	003.087(020)		2	
21	2006-2	헤겔, 『정신현상학』	003.087(021)		2	
22	2006-2	Vilém Flusser (1987): 『Die Schrift - Hat Schreiben Zukunft?』	003.087(022)		0	폐강
23	2006-2	『의사醫師 지바코 Доктор Живаго』 보리스 파스테르나	003.087(023)		1	
24	2006-2	A.П.Чехов,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и писем	003.087(024)		1	
25	2006-2	Pablo Neruda[1924], 『Veinte poemas de amor y una canción desesperada』	003.087(025)		4	
26	2006-2	Alejo Carpentier, 『El reino de este mundo』	003.087(026)		0	폐강
27	2006-2	楞嚴經 卷1-10	003.087(027)		1	
28	2006-2	홍대용의 『의산문답』과 장현광의 『우주설』	003.087(028)		0	폐강
29	2006-2	조선시대 생활사 고문서집진(2)	003.087(029)		2	
30	2006-2	W. von Sternburg, Adenauer. Eine deutsche Legende	003.087(030)		1	
31	2006-2	Das Papsttum. Grundzüge seiner Geschichte von der Antike bis zur Renaissance	003.087(031)		0	폐강
32	2006-2	E. Husserl, Die Idee der Phänomenologie,	003.087(032)		5	
33	2006-2	Technik und Kehre	003.087(033)		3	
34	2006-2	『범구경』	003.087(034)		1	
35	2006-2	James George Frazer, <i>The Golden Bough</i> . New York	003.087(035)		4	
36	2006-2	도마복음 (콥트어 영지주의 문헌 원전강독)	003.087(036)		3	
37	2006-2	동학자료 읽기	003.087(037)		2	
38	2006-2	David Hume, Of the Standard of Taste and Other Essays	003.087(038)		3	
39	2006-2	中國書論類編 - 上, 下, 유곤(俞棍)저/中國古典美學學要	003.087(039)		1	
40	2006-2	Korsmeyer, C. (ed), <i>Aesthetics: The Big Questions</i>	003.087(040)		4	

소개 40강좌

순번	개설학기	강좌명	교과목번호 (강좌번호)	지도교수	수강인원	비고
1	2007-1	한중록(한중만록, 버클리대학교장본)	003.087(001)		4	
2	2007-1	강신항 역주, 훈민정음	003.087(002)		4	
3	2007-1	《三國遺事》(晚松文庫本)	003.087(003)		4	
4	2007-1	蒙求	003.087(004)		5	
5	2007-1	古文觀止, 三民書局, 1997.	003.087(005)		3	
6	2007-1	[漢] 高誘 注《戰國策·秦策》	003.087(006)		0	폐강
7	2007-1	《논어의소(論語義疏)》	003.087(007)		4	
8	2007-1	魯迅, 『故事新編』	003.087(008)		1	
9	2007-1	Robert Pirsig, <i>Zen and the Art of Motorcycle Maintenance: An Inquiry into Values</i>	003.087(009)		5	
10	2007-1	The Anglo-Saxon Chronicle	003.087(010)		3	
11	2007-1	Samuel Johnson's <i>Lives of the Poets</i> (1781)	003.087(011)		8	
12	2007-1	Conan Doyle, Sir Arthur. <i>The Complete Sherlock Holmes.</i>	003.087(012)		12	
13	2007-1	The Feminine Mystique, Norton & Company	003.087(013)		5	
14	2007-1	Gerard Nerval의 Les Filles du feu	003.087(014)		1	
15	2007-1	C. Baudelaire, <i>Le Spleen de Paris</i>	003.087(015)		1	
16	2007-1	포루어얄 문법서, <i>Grammaire générale et raisonnée</i>	003.087(016)		0	폐강
17	2007-1	<i>Les Caractères ou les Moeurs de ce siècle</i>	003.087(017)		0	폐강
18	2007-1	Descartes, <i>Discours de la méthode</i> , GF-Flammarion	003.087(018)		2	
19	2007-1	Vilém Flusser (1987): 『Die Schrift - Hat Schreiben Zukunft?』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	003.087(019)		0	폐강
20	2007-1	Проблемы поэтики Достоевского	003.087(020)		4	
21	2007-1	Carlos Fuentes 『La muerte de Artemio Cruz』	003.087(021)		5	
22	2007-1	Pablo Neruda[1924],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 <i>Veinte poemas de amor y una canción desesperada</i> 』	003.087(022)		2	
23	2007-1	능엄경 권9-10	003.087(023)		0	폐강
24	2007-1	안동권씨 成化譜, 典當·還退文記, 贖良文記, 自賣文記, 分財記 등 고문서	003.087(024)		2	
25	2007-1	『호적문집(胡適文集)』(北京大學出版社, 1998) 선독(選讀)	003.087(025)		3	
26	2007-1	U. Frevert, "Mann und Weib, Weib und Mann" <i>Geschlechter-Differenzen in der Moderne,</i>	003.087(026)		1	
27	2007-1	Walter Ullmann, A Short History of the Papacy in the Middle Ages	003.087(027)		5	
28	2007-1	Man makes himself - man's progress through the ages	003.087(028)		4	
29	2007-1	『관자통해』(管子通解), 趙守正撰, 북경경제학원출판사	003.087(029)		0	폐강
30	2007-1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003.087(030)		-	개설 취소
31	2007-1	Euthyphron/Crito in <i>Plato, Complete Works, vol.1</i> .ed. by Cooper, John 1997 Hackett Publishing Co.	003.087(031)		6	
32	2007-1	Hölderlins Erde und Himmel	003.087(032)		1	
33	2007-1	Hegel, <i>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i>	003.087(033)		5	
34	2007-1	주희·여조검, (근사록)	003.087(034)		4	
35	2007-1	Codex Hammurabi (아카드어 [함무라비 법전] 읽기)	003.087(035)		6	
36	2007-1	東經大全	003.087(036)		0	폐강
37	2007-1	James George Frazer, <i>The Golden Bough</i>	003.087(037)		5	
38	2007-1	중국화론류편-상, 하(中國畫論類編 -上,下), 유곤(俞樾) 저, 대만 화정(華正)서국, 1984(민국73년)	003.087(038)		5	
39	2007-1	David Hume, Of the Standard of Taste and Other Essays	003.087(039)		4	
40	2007-1	Matthew Kieran, <i>Revealing Art</i> (Routledge), 2005	003.087(040)		5	
소계 40강좌						
총 119강좌						

7) 『소그룹특활세미나』 운영현황(2005동계방학~2007.1학기)

순번	운영시기	세미나 주제	지도교수	소속	참여인원
1	2005동계방학	물질자료로 보는 한국고대사의 단면		국사학과	6
2	2005동계방학	한국 현대 문학		국어국문학과	8
3	2005동계방학	20세기 문학이론		국어국문학과	10
4	2005동계방학	연극, 희곡 이론		국어국문학과	5
5	2005동계방학	프랑스 마르크주의와 유럽통합 연구		불어불문학과	9
6	2005동계방학	서양연극사조 세미나		불어불문학과	9
7	2005동계방학	중세 말, 근대 초의 이단, 마녀, 그리고 종교		서양사학과	9
8	2005동계방학	민족주의		국사학과	8
9	2006-1학기	종교사회학의 고전적 이론과 현대적 재해석		종교학과	6
10	2006-1학기	오리엔탈리즘과 서양중심주의		서양사학과	6
11	2006-1학기	유럽중심의 자본주의적 세계체계에 대한 이해		서양사학과	6
12	2006-1학기	현대자본주의의 동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서양사학과	8
13	2006-1학기	고고학의 이론과 실제		고고미술사학과	6
14	2006-1학기	초급/중급 독일어 문법 기초 다지기		독어독문학과	9
15	2006-1학기	독일 어학연수 준비반의 동화책 읽기		독어독문학과	6
16	2006-1학기	독서를 통한 토론세미나의 개최		서어서문학과	10
17	2006-1학기	여성주의에 대한 통찰과 올바른 이해		불어불문학과	10
18	2006-1학기	영화학회		서어서문학과	6
19	2006-1학기	프랑스어 원문 강독 세미나		불어불문학과	9
20	2006-1학기	연극 이론		국어국문학과	7
21	2006-1학기	한국 현대 문학 스터디		국어국문학과	10
22	2006-1학기	20세기 문학이론		국어국문학과	5
합 계		소계 22 그룹			
1	2006하계방학	규장각 소장 미번역본 『문취(文趣)』 강독 및 번역		국어국문학과	8
2	2006하계방학	인문학 고전 읽기 - 20세기 문명과 문학이론에 대한 반성적 성찰		국어국문학과	9
3	2006하계방학	1930년대 현대 문학 세미나 - 구인회(3)		국어국문학과	10
4	2006하계방학	연극이론		국어국문학과	7
5	2006하계방학	모더니스트들의 범경 공방 - 비교를 통한 모더니즘의 이해		영어영문학과	12
6	2006하계방학	빅토리아시대의 산문(Victorian Prose)		영어영문학과	6
7	2006하계방학	제인 오스틴의 문학세계		영어영문학과	9
8	2006하계방학	버지니아울프의 소설과 산문 탐독을 통한 작가의 포괄적인 이해		영어영문학과	10
9	2006하계방학	희랍고전문학강독		영어영문학과	9
10	2006하계방학	프로이트와 라캉 정신분석학의 '여성성' 개념의 비판적 이해		불어불문학과	10
11	2006하계방학	이미지 읽기를 통한 라틴아메리카 엿보기		서어서문학과	10
12	2006하계방학	파시즘과 대중독재		국사학과	16

13	2006하계방학	푸코의 『성의 역사』를 통해 본 성, 권력, 주체	서양사학과	5
14	2006하계방학	자본주의의 역사적 태동 과정과 현재적 의의	서양사학과	9
15	2006하계방학	선사시대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고고미술사학과	6
16	2006하계방학	종교학 이론연구 - 조나단 스미스의 원전 강독을 중심으로	종교학과	8
17	2006하계방학	페미니즘을 통한 현대 문화와 예술 읽기	미학과	10
18	2006-2학기	인문학 고전 읽기 - 20세기 문명과 문학이론에 대한 반성적 성찰	국어국문학과	8
19	2006-2학기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읽기	서어서문학과	10
20	2006-2학기	연극이론 3 - 19세기 연극의 흐름	국어국문학과	6
21	2006-2학기	문화적 불루집: 스페인어권 문화의 가치	서어서문학과	10
22	2006-2학기	서양 중심의 세계체제와 그에 대한 비판	서양사학과	7
23	2006-2학기	영국근대사: 산업혁명기 이후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과	9
24	2006-2학기	역사의 주체로서의 대중	국사학과	12
25	2006-2학기	과정주의 고고학에서 후기과정주의 고고학으로	고고미술사학과	7
26	2006-2학기	라캉 정신분석학에 대한 철학적 이해	불어불문학과	10
27	2006-2학기	1930년대 현대 문학 세미나 - 동반자작가	국어국문학과	10
28	2006동계방학	한국 근대의 종교지형 - 근대화에 대한 기존 종교의 대응과 신종교의 발흥	종교학과	8
29	2006동계방학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이해	서양사학과	10
30	2006동계방학	초서의 『켄터베리 이야기』를 통한 중세 읽기와 중세를 통한 우리시대 읽기	영어영문학과	10
31	2006동계방학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	서양사학과	10
32	2006동계방학	정신분석학과 사회이론의 만남	불어불문학과	10
33	2006동계방학	현대 영미 희곡과 연극의 이해	영어영문학과	7
34	2006동계방학	담화분석: 영어 잡지 광고 담화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과	6
35	2006동계방학	미국사: 식민지 개척부터 19세기 말까지	영어영문학과	7
36	2006동계방학	아시아계 미국문학과 미국의 대중문화	영어영문학과	8
37	2006동계방학	Contemporary British Novel	영어영문학과	9
38	2006동계방학	영화로 보는 독일 현대사	독어독문학과	9
39	2006동계방학	미학과 성 정치학	미학과	10
40	2007-1학기	『과시즘』 이해	서양사학과	7
41	2007-1학기	라틴아메리카: 혼종성의 메카	서어서문학과	9
42	2007-1학기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미학과	10
43	2007-1학기	『러시아 문학사』의 보장을 위하여: 푸슈킨에서 불가코프까지	노어노문학과	6
44	2007-1학기	역사이론과 문화사 학습·체험 세미나	국사학과	8
45	2007-1학기	언어학 고전 강독(1): 촘스키의 『Syntactic Structures』	언어학과	13
46	2007-1학기	언어와 세상을 연결하는 의미의 구조	언어학과	11
47	2007-1학기	정신분석과 문예비평: 히치콕 영화 분석하기	불어불문학과	9
합 계		소계 47 그룹		
총 69그룹				

III. 인문학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특성화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현재까지의 시행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양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수 및 학생의 참여도 혹은 호응도가 5개 중점분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학생이나 교수의 관심과 반응을 고려할 경우 비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분야로서 소단위 학습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소그룹고전원전읽기, 독립과제연구, 소그룹특활세미나, 졸업논문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수,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는 학습동기를 자극하고 심층적이며 밀착지도가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함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학제적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는 매우 저조하다. 현재 시행중인 협동강의 프로그램은 수강학생의 수가 극히 적고, 참여교수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행 학과체제의 벽도 한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 학과가 전공교과과정의 운영을 우선시하고 이에 집중하는 상황이 협동강의의 원활한 운영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2. 서울대학교 인문학 교육 특성화사업의 경험은 현행 학과체제 아래 학과의 협조와 참여 없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특성화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인문학 교육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주로 학사구조의 변화에 치우쳤다는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리하여 교육의 제도적 틀이 아니라 교육 내용을 바꿈으로서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교육편제에서의 일정한 변화 없이 인문학 교육을 쇄신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현행 학과체제는 전공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으며, 학과 간 장벽이 높고 학문적 교류와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모든 대학에서 거의 예외 없이 복수전공, 이중전공, 연합전공, 부전공 등의 제도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하지만 교과과정을 만들고 강의를 담당하는 학과와 교수 상호간에 학제적 교류와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세부전공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교과과정이나 강의 자체가 학제적 내용을 담고 있는 못하면서 그것을 이수하고 수강하는 학생 스스로가 폭넓은 지식과 사고의 중요성을 자각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기모순이라 할 수 밖에 없다.

3. 인문학,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문대학이 당면한 위기현상의 배경에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인문학도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변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학 교육의 문제점도 위기를 자초하는 면이 있다. 다시 말해 인문학이 매력을 상실하는 데는 구태의연한 교육편제와 고답적인 교과과정 및 교육방식의 탓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학 교육의 쇄신을 위해서는 교육의 틀과 아울러 교육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문학 교육의 쇠신을 위한 노력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인문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인문학은 한 마디로 말해 응용학문이 아니라 기초학문이다. 그 점에서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의 성격을 살리는 것이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대학과 사회에서 인문학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모든 지식과 학문연구의 토대가 되는 기초학문이라는 점에 있고, 따라서 기초교육에 충실하는 것이야말로 인문학 교육의 본분이며, 쇠락하는 인문학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대학의 인문학 교육은 각 학과를 중심으로 전공학문에 대한 학부교육과 대학원 교육, 그리고 전공 외 일반 교양교육의 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인문학이 기초학문으로서 기초교육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인문학 교육의 세 영역 가운데 일반 교양교육의 영역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는 점을 의미한다. 인문학 교육은 이제 수요가 없음에도 전공학생을 억지로 붙들어 학과를 유지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식을 조금만 바꾸어보면 비록 인문학을 전공하지만 않지만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인문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 대학이 존재하는 한 교양교육은 존재한다. 교양교육이 대학교육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교양교육이야말로 인문학 교육이 어떤 사회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육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흔히 주장하듯 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며, 인간에 관한 인문학적 사고와 지식은 인간 활동의 전 영역에 걸쳐 그 토대가 된다고 정말 스스로 믿는다면 웅당 기초교육으로서의 인문학 교육의 기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인문학의 위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교육의 대상 및 교육 목표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인문학 교육의 핵심 대상과 목표를 기초교양교육에 둔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교육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편제의 제도적 틀도 바꾸어야 할 것이다.